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폐광 위기에 놓인 탄광촌 브라스 밴드의 삶과 경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 '브래스트 오프'는 말 그대로 음악영화를 표방한다.

영국 요크셔 그림리 탄광촌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자이며, 모두가 패배자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즐거움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탄광촌 브라스 밴드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폐광 위기에 놓인 그들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결국 꿈에 그리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우승하여 수상소감을 밝히는 리더 대니(피트 포스트스웨이드)는 수상을 거부하며 이제 실직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삶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영화는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을 타고 금의환향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원 앞마당에서 연주하는 영국 민요 '대니 보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글로리아(타라 피츠제랄드)가 그림리 밴드와 처음으로 조우하며 연주하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 브라스밴드 버전. 원래는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된 곡이다.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은 과거 '토요명화' 시그널뮤직으로 사용돼 친숙하다. 아랑훼즈는 마드리드 남방에 있는 18세기 부르봉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중요 유적지이다.

로드리고는 이 곡의 아름다움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협주곡을 작곡하는 일이 '신과의 대화'를 나눈 것과 같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3살 때 악성 디프테리아로 인해 완전히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다!

'브래스트 오프' 중 로드리고 '아랑훼즈 협주곡'

음악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며 탄광촌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 아이러니하게도 갈 곳이 없는 그들의 운명 덕분에 목직인 슬픔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짓누른다. 음악과 극은 엇박자를 치며 오히려 그 슬픔을 배가시킨다. 외형상 해피엔딩이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과연 음악이 그들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브래스트 오프'는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시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스밴드가 연주하는 사운드로 수놓아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두 장편의 음악이 가장 인상적이다.

하나는 밴드의 리더인 대니를 위해 병

과거에는 나르시소 에페스, 페페 로메로 등의 연주가 사랑받았지만, 최근 녹음으로 무라지 카오리의 연주가 사랑스럽다. 일본 출신의 젊은 여류 기타리스트로 샤프 펜슬로 세밀화를 그리듯 차분하고 담백하게 아주 정묘한 연주를 펼쳐 들려준다.

하지만 역시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동시에 느끼기에 원곡 연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브라스밴드 버전을 들으면, 묘하게도 원곡보다 더한 감동이 숨 막힐 듯 밀려온다. 사람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어야만 소리를 내어주는 관악기의 특성 때문일까. 원곡의 장중함은 사라지고,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첫 만남의 수줍은 설렘이 멜로디에 가득 엉겨붙는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광주서 초대전 여는 가수 조영남

“이번 전시는 내 예술 인생의 최정점”

TV에서 본대로, 라디오에서 들은 대로, 책에서 읽은 '그대로'였다.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화수(畫手) 조영남. 일체의 가식 없이, 꾸미는 것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조씨는 현대의 르네상스인이다. 가수이자, 화가이자, MBC 라디오의 '조영남 최유리의 라디오 시대'와 KBS TV '명작 스캔들'의 사회자이다. 또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등 다양한 소재로 책을 써온 저술가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화수 조영남, 회화 45년 전'(7월31일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개막식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은 조씨를 만났다.



17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화수 조영남, 회화 45년 전'에 참석한 조영남씨가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할 '극동에서 온 꽃'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인터뷰=김미은 문화부장

-60년대부터 최근작까지 200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가 당시 전시중 가장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사람은 오래 살고 불멸이다. 사실, 내가 서울 현대회관 등 갤러리 대표들과 친분이 아주 두텁지만 한번도 메이저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이번 광주 전시가 내 그림 인생의 하나의 정점이 될 듯하다. 내가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가수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 '시비'가 많았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럴 때 마다 지인들이 그러더군. "그렇다고 안할 건 아니잖냐. 그 말이 맞더라.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아야겠다 싶었다. 이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이 최정점을 찍는 게 아닌 가 싶다. 오래 사니까 이런 호감도 하는 건가. 광장학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세시봉 콘서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건 원래 라디오에서 '조영남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거다. '놀러와' 팀이 TV로 해보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다. 환갑 진갑 다된 노인들이 한물 간 통기타 들고 노래한다는 게 공상스럽게 보이진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의 반응에 더 놀랐지. 첫번째는 한 단체 연습 없이 형주랑 내가 페퍼토리만 짜 가지고 무대에 올랐었다. 두번째 때는 4번 정도 연습했는데 첫번째 공연때가 훨씬 좋았다. 예술이라는 것, 누군가의 가슴을 울린다는 것. 그것은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기술로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당시 '비틀즈'였고, '라보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어렵겠지. 아날로그시대여서 가능했던 거고.

-이번에 나온 책 '세시봉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밝혔나 싶었다. 여자 문제라든지, 말을 뱌고 나서, 책에 쓰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다. 설화도 많았잖나.(웃음)

▲난 나에게에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다 이야기 하는 편이다. 그건 다른 이유가 없다.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추측과 오해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니까. 미리 그런 싸움 없애 버리는 거지, 서태지와 이치아처럼 되지 않으려는 거다.(웃음) 설화는 수도 없이 많다.

-MBC '조영남 최유리의 라디오 시대'도 그렇고 KBS 1TV의 '명작 스캔들' 역시 당시와 딱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다. 송경아랑은 패선잡지 '보그' 화보도 찍었던데.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거절했었다. 시간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말을 꺼내 놓기는 잘하지만 수습을 못한다. 처음 1개월만 하고 반응을 보자 했는데 4번째 하고 있다. 청취율도 1위고, 김흥국이나 김미화 다 MBC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아직도 발붙이

고 있다.(웃음). '명작 스캔들'은 '클래식 오딧세이'를 만들었던 담당 PD가 나를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고 하더라.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공부를 아주 많이 해 가지고 간다. 그걸 TV에서 티나지 않게 보여주는 건 기술이지.

-현대미술, 시인 이상, 사랑까지 직접 쓴 책의 소재가 다양하다.

▲원고는 붉은색 볼펜으로 틀틀이 쓴다. 내가 꼭 쓰고 싶었던 책은 시인 이상을 분석한 '이상은이상이상이었다'다. 당초 미술을 하다 문학으로 진로를 바꾼 이상의 인생과 내 인생 코드가 비슷하다고 느꼈다.

-전시를 둘러본 소감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검손은 힘들어'라는 작품이 눈에 띄더라. '여친 용광'도 유쾌하고.

▲이 많은 작품들을 내가 다 그리고 조각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하다. 전시 공간도 너무 근사해서 행복하다. '검손은 힘들어'는 내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겸손해지는 거거든. 평생 그걸로 싸우면서 살고 있기도 하고.(웃음), '여친 용광'에 등장하는 내 '여친'들이 모두 29명이다. 이게 자료로 남아서 내가 죽고 난 후 '조영남의 여친은 29명'이었다고 역사가 기록

할 지도 모르겠다. 이상미·장나리 등 29명이 등장하는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장영희·김점선·최윤희 등 세명이다. 이번 전시에 내 책을 전시해 둔 작품도 있는데 난 죽을이라는 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 떠난 여친들도 전화하면 지금 광주로 뛰어 올 것 같고, 이번 광주 전시에도 '블론티어' 중 시간이 맞는 '여친' 7명이 함께왔다.(웃음)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남아 있다.

▲나는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 같은 게 없다.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원 없이 했다. 아, 참 하나 있기는 하다. 이번 (이)장회가 '엘름토'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나도 서울을 테마로 한 신곡을 만들어 볼까 한다. 가사는 내가 쓰고 곡은 창식에게 써보라고 할까 생각중이다.

조씨는 이날 미술관을 찾은 300여명의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림은 그냥 취도 돈 안받고 노래한 적 없다"는 농담을 하며 운동주의 '서시' 등을 불렀다.

또 광주시립미술관에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100호짜리 '극동에서 온 편지' 등 2점을 기증했으며 명예홍보대사직도 수락했다.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실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 - 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ITALY

ITALY

ITALY